



KOSBI

제14-18호 2014. 12.

# 중소기업 포커스

창업기업의 성장과 폐업,  
그리고 고용

책임작성 | 박재성 연구위원(02-707-9830, jspark@kosbi.re.kr)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bi.re.kr](http://www.kosb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목 차

1. 문제제기
2. 창업기업의 고용 변동
3. 창업기업의 생존율
4. 정책적 시사점

## | 요약

- 창업의 고용 효과에 대한 분석은 창업의 규모나 창업률의 측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창업으로 인한 고용이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관찰 필요.
- 창업에 의한 고용은 최근 경기변동의 제1국면('01~'02)과 제2국면('03~'05) 중 경기회복에 따라 약진하기도 했으나 제3국면('06~'08)과 제4국면('09) 중에는 침체, 제5국면인 '09년 이후 회복세.
- 제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은 창업에 의한 고용증가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 운수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창업에 의한 고용증가 비중의 감소가 작은 편.
- 업종별로 전체 사업체에서 해당 업종의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창업 사업체에서 해당 업종의 창업 사업체가 차지한 비중을 비교한 결과 '09년 이후 숙박음식업의 창업이 활발.
- t년도의 고용 변동을 창업기업의 고용증가와, 폐업기업의 고용감소, 계속기업의 고용증감(순고용증가)로 구분할 경우, 창업으로 인한 고용은 폐업으로 인한 고용 감소로 대부분 상쇄되며, 계속기업은 고용 감소 영향 우세.

- 창업 이후 고용 변동을 각각 계속기업(생존사업체)의 고용증가 및 고용감소, 폐업에 따른 고용소멸 등 3가지 경로로 구분할 경우 업력 1년에서 6년 이후(6+)에 이르기까지 창업(업력 0년)에 따른 고용 창출은 고용 유지나 고용 확대의 형태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음.
- 창업에 따른 고용창출 규모가 비록 크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연도에 ‘반짝’ 효과로 작용할 뿐 지속적인 고용개선 효과는 미흡.
- 업력 1년 차 폐업에 의한 고용감소율은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이 높은 반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숙박음식업, 사업서비스업은 계속기업의 고용 사정이 업력 1년 차보다 업력 2년 차에 더욱 악화되는 경향.
- 계속기업(생존사업체)의 고용증가율은 정보통신업이 가장 높으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은 고용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
- 창업 사업체의 약 4은 1년 내에 폐업하며, 4년 내 절반이 사라짐.
- 제조업 및 개인서비스업의 생존율은 중소기업 전 업종 생존율과 비교하여 전 기간에 걸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과 정보통신업의 생존율은 전 업종 생존율 대비 낮으며, 숙박음식업의 생존율은 기간이 길수록 더욱 크게 하락.
- 국내 창업 실패는 창업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생존기업의 고용 확대가 부진하며 생존율도 높지 않음.
- 창업의 고용 기여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과 같이 생존율이 낮은 업종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정보통신업과 같이 생존사업체의 고용확대 효과가 큰 업종의 생존율 제고 필요.
- 창업 못지않게 초기 창업 기업의 정착과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며, 이제까지 양적 “창업”에 초점을 맞춘 창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창업 기업의 질적 육성, 즉 창업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의미.



## 1.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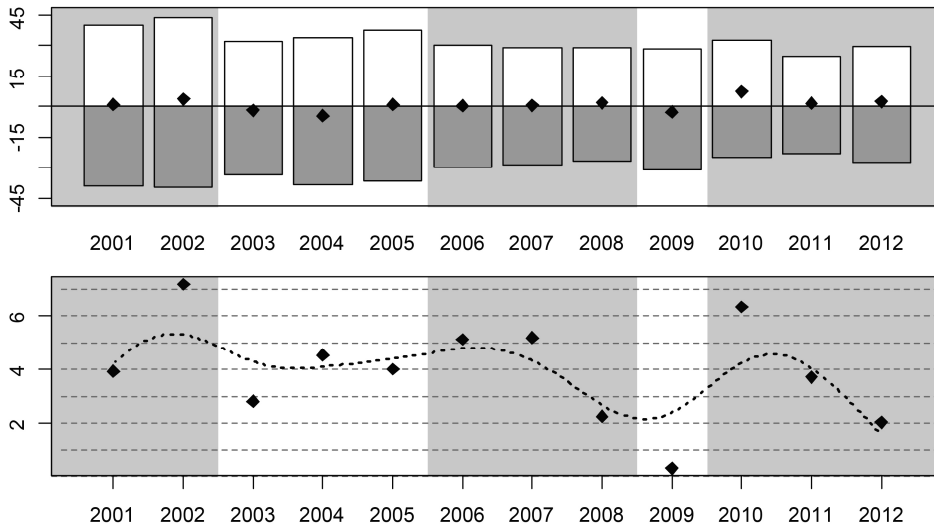
-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창업 기업의 실질적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은 미흡.
  - 창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은 주로 창업 당해 연도( $t_0$ )를 중심으로 연도별 창업에 따른 고용규모를 산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창업기업 고용규모의 동태적 변화, 즉 창업 이후 고용변동에 대한 분석은 미흡.
- 창업의 고용 효과에 대한 분석은 창업의 규모나 창업률의 측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창업으로 인한 고용이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관찰 필요.
- 창업 이후 고용 변동을 동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창업은 얼마나 고용을 늘리는가?”, “창업의 고용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는가?”, “어디서 고용효과가 뚜렷한가?”, “고용 변동의 특징은 무엇인가?” 등에 해답 가능.

## 2. 창업기업의 고용 변동

- (분석대상)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의 원시자료(raw data)와 연결되는 사업체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 (분석방법)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00~'12년 원시자료(microdata)를 이용하여, 통계청에서 부여한 사업체고유번호를 기준으로 패널 자료를 구축한 뒤  $t-1$ 기와  $t$ 기 간 사업체 연속성을 기준으로 고용변동 분석.
  - (창업)  $t-1$ 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t$ 기에는 존재하는 사업체.
  - (폐업)  $t-1$ 기에는 존재했으나  $t$ 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
  - 고용증가(감소)는  $t-1$ 기와  $t$ 기 사이의 사업체 종사자 수의 증가(감소)를 의미.
  - $t$ 년도  $i$ 사업체의 고용 및 고용증가율을 각각  $E_{it}$ 와  $g_{it}$ 라고 하고  $g_{it}$ 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면,  $-200\% \leq g_{it} \leq 200\%$ 이며  $g_{it}$ 에 따라 고용상태 구분 가능.
    - $g_{it} = (E_{it} - E_{it-1})/X_{it}$ 이며,  $X_{it} = 0.5 \times (E_{it} + E_{it-1})$ 로  $t-1$ 년과  $t$ 년 고용의 단순 평균.
    - $g_{it} == 200\%$                      $\Rightarrow$  고용창출(창업에 의한 고용증가)
    - $0 \leq g_{it} < 200\%$                  $\Rightarrow$  고용확대(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고용증가)
    - $-200\% < g_{it} < 0$                  $\Rightarrow$  고용감소(계속기업의 고용감소)
    - $g_{it} == -200\%$                      $\Rightarrow$  고용소멸(폐업에 의한 고용감소)
  - 각각의 사업체를 업종 등의 범주( $s$ )에 따라 묶어,  $t$ 년 그룹  $s$ 의 고용증가  $JC_{st}$ 와 고용감소  $JD_{st}$ 를 산출.
- (경기변동과 순고용증가율) 순고용증가율은 경기변동을 반영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09년에도 크게 하락하였으며, '10년에는 기저효과로 상승.
  - 내수침체기인 '03~'04년 순고용증가율(아래 그림 위쪽 패널의 검은 점)은 각각 -1.8%와 -4.3%로 음의 값을 나타냈으며, '09년에도 -2.5%로 크게 하락.

- '10년에는 글로벌금융위기에 대한 기저효과로 반등하여 6.7%에 이르렀으며 이후 증가세 유지.

[그림 1] 연도별 경기변동과 순고용증가율



\* 위 패널에서 막대그래프는 각각 연도별 고용증가율과 고용감소율을 나타낸 것이며 점 그래프는 이 둘의 차이인 순고용증가율임. 아래 패널에서 점 그래프는 연도별 실질 GDP 증가율을 표시한 것이며 점선 그래프는 이들 실질 GDP 증가율을 평탄화한 것으로 커널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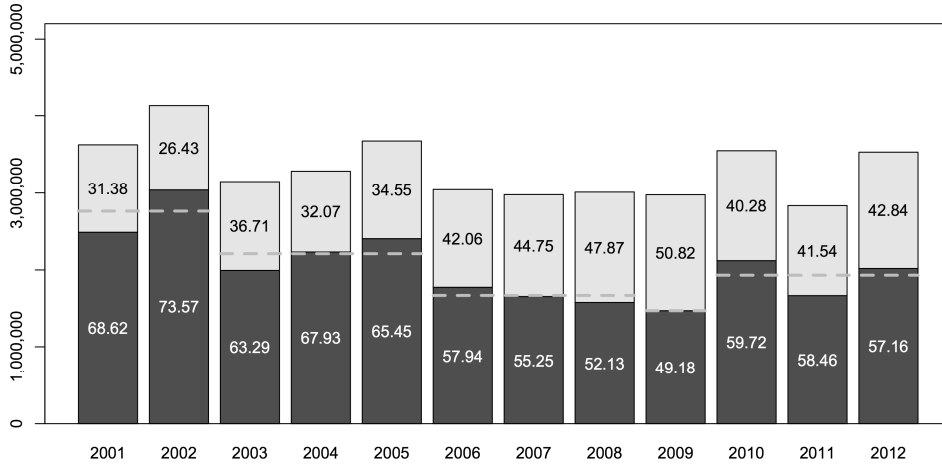
† 흰색과 회색 음영은 각각 경기국면을 나타내며, 경기국면은 통계청의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1국면('01~'02, 외환위기 후 경기회복기): '01년 7월에 저점 기록, '02년 12월 외환위기 충격 완화.
- 2국면('03~'05, 내수침체기): '02년 12월에 정점에 이른 후 내수침체로 지속 하락, '05년 4월에 저점 기록.
- 3국면('06~'08, 부동산버블기): '05년 4월 저점 이후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08년 1월 정점 기록.
- 4국면('09, 글로벌금융위기 지배기):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충격으로 각종 거시지표 악화.
- 5국면('10~'12, 위기 후 경기회복기): '10년 이후 회복기가 진행되면서 주요 거시지표 개선.

■ (고용증가 중 창업고용의 비중) 창업에 의한 고용은 제1국면('01~'02)과 제2국면('03~'05) 중 경기회복에 따라 약진하기도 했으나 제3국면('06~'08)과 제4국면('09) 중에는 침체, 제5국면인 '09년 이후 회복세.

- 제1국면~제3국면의 창업의 고용기여(아래 그림에서 막대 그래프의 검은 색 비중)는 각각 평균 71.1%, 65.6%, 55.1%이며 제4국면은 49.2%, 제5국면은 평균 58.4%.
- 창업의 고용기여가 제4국면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은 동 기간 중 신규 사업체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인.

[그림 2] 창업에 의한 고용증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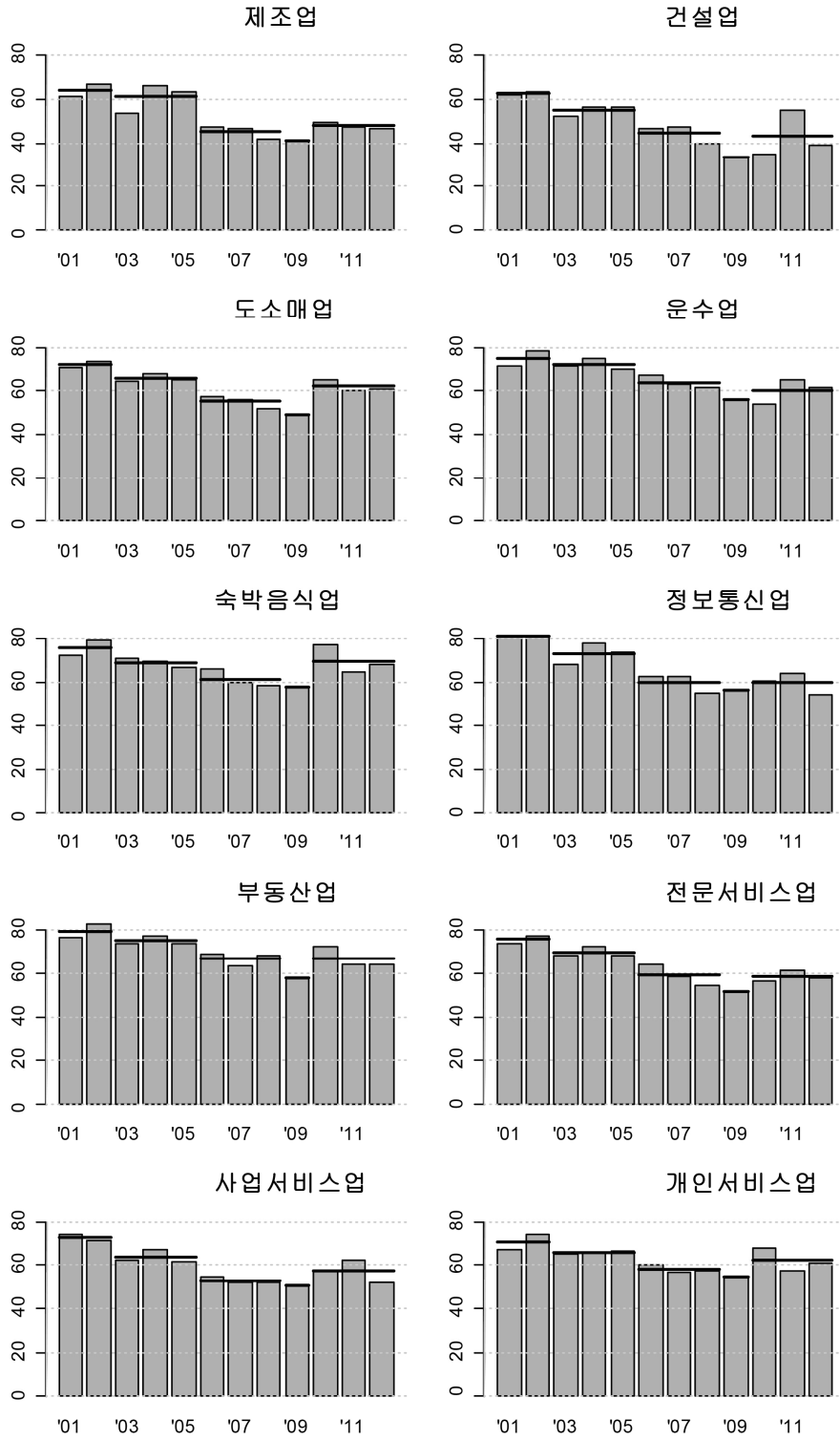


\* 막대그래프에서 검은 색 부분은 창업에 의한 고용증가, 회색 부분은 계속기업에 의한 고용증가를 각각 가리킴. 점선은 각 국면별 전체 고용증가에서 창업에 의한 고용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값.

- (업종별 창업고용 비중) 제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은 창업에 의한 고용증가 비중이 크게 하락한 반면, 운수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개인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창업에 의한 고용증가 비중의 감소가 작은 편.
  - 제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은 제1국면 대비 제3국면에서 창업에 의한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p 가까이 하락.
  - 제조업과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은 제5국면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은 계속 창업 비중 약화.
  - 운수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창업에 의한 고용증가 비중의 감소가 작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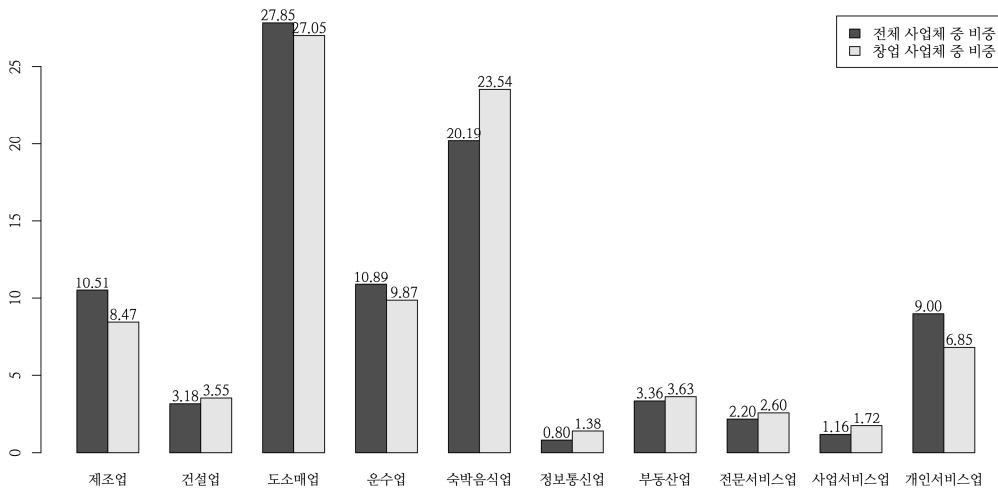
[그림 3] 업종별 창업에 의한 고용증가 비중



\* 막대그래프의 검은 선은 각 국면별 전체 고용증가에서 창업에 의한 고용증가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값.

- (창업사업체 비중) 업종별로 전체 사업체에서 해당 업종의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창업 사업체에서 해당 업종의 창업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결과 '09년 이후 숙박음식업의 창업이 활발함.
- '10~'12년 전체 사업체에서 숙박음식업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19%이며, 전체 창업 사업체에서 숙박음식업 창업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3.54%로 3.34%p 높음.
- 제조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은 전체 사업체 비중 대비 창업 사업체 비중이 작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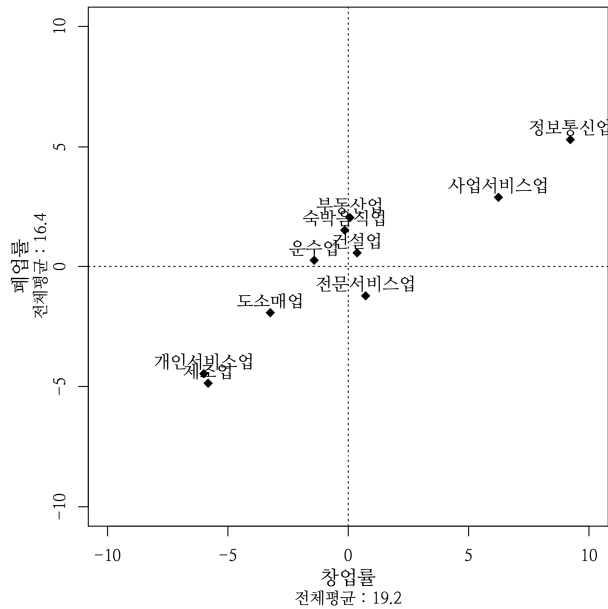
[그림 4] 업종별 전체 사업체 및 창업 사업체 대비 비중



\* '10~'12년 평균값.

- (업종별 창폐업률) 정보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업은 전 업종 평균 대비 기업의 생멸(生滅)이 활발한 편이며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은 창업률과 폐업률이 모두 전업종 평균 이하.
- 정보통신업과 사업서비스업의 창업률은 전 업종 평균 대비 각각 9.2%p와 6.2%p 높으며, 폐업률도 전 업종 평균 대비 각각 5.3%p와 2.9%p 높음.
- 업종별 창업률과 폐업률의 관계는 약 45° 선을 유지함으로써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냄.

[그림 5] 업종별 창업률과 폐업률



\* 창업률과 폐업률은 각각 '07~'12년 평균값

■ (연도별 고용변동 분해)  $t$ 년도의 고용 변동을 창업기업의 고용증가와, 폐업기업의 고용감소, 계속기업의 고용증감(순고용증가)로 구분할 경우, 창업으로 인한 고용은 폐업으로 인한 고용 감소로 대부분 상쇄되며, 계속기업은 고용 감소 우세.

• 아래 그림 위 쪽 짙은 회색 영역의 창업기업의 고용증가와 아래 쪽 흰색 영역인 폐업으로 인한 고용감소를 비교할 경우, 위아래로 서로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창업 사업체의 고용창출은 폐업 사업체의 고용소멸로 대부분 상쇄.

-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09년에는 폐업의 고용소멸이 창업의 고용창출보다 더 컸으며, 회복기인 '10년에는 창업 증가로 창업의 고용창출 규모가 폐업의 고용소멸 규모를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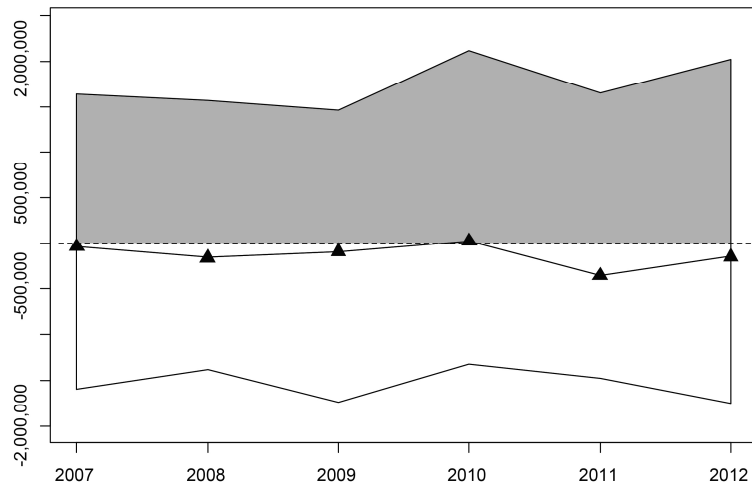
- 연도별 창업의 고용창출과 폐업의 고용소멸 간 격차(고용창출-고용소멸)는 41,921('07), 178,040('08), -283,067('09), 790,903('10), 175,624('11), 268,018('12).

• 계속기업의 순고용증가를 나타내는 점 그래프는 '10년을 제외하면 모두 음(-)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1과 '12년은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09년보다도 순고용규모가 더 작음.

- 계속기업은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고용을 줄이는 쪽의 영향 우세.

- 연도별 계속기업의 순고용증가는 -32,047('07), -156,959('08), -90,578('09), 27,384('10), -353,059('11), -143,849('12)
- 창업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10년 한 해를 제외하면 대부분 답보상태이거나 '09년과 '11년과 같이 폐업이 증가하거나 계속기업의 고용이 큰 폭으로 줄어든 해에는 오히려 감소.

[그림 6] 연도별 고용 분해



\* 위의 짙은 회색 영역은 창업으로 인한 고용증가, 즉 고용창출을, 아래 옅은 회색 영역은 폐업으로 인한 고용감소, 즉 고용소멸을 나타냄. 점 그래프는 계속기업의 고용증감(순고용증가)을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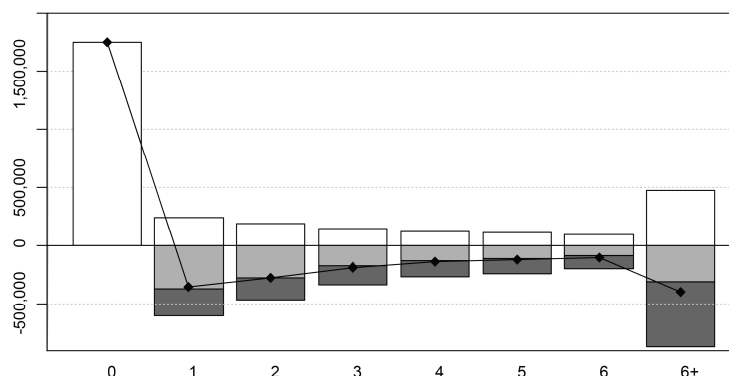
■ (업력별 고용변동) 창업 이후 고용 변동을 각각 계속기업(생존사업체)의 고용증가 및 고용감소, 폐업에 따른 고용소멸 등 3가지 경로로 구분할 경우 업력 1년에서 6년 이후(6+)에 이르기까지 창업(업력 0년)에 따른 고용 창출은 고용 유지나 고용 확대의 형태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음.

- 아래 그림에서 흰색은 창업 또는 계속기업의 고용증가를 나타내며, 옅은 회색은 폐업에 따른 고용감소, 즉 고용소멸을 표시. 짙은 회색은 계속기업의 고용감소이며, 점 그래프는 계속기업의 고용증가와 고용감소, 폐업기업의 고용소멸을 모두 반영하는 전체적인 순고용증가 수준.

- 따라서 점 그래프가 옅은 회색 영역 안에 있으면 계속기업이 고용을 늘리면서 (순고용 증가), 폐업기업의 고용소멸을 상쇄함을 의미하며, 반대로 짙은 회색 영역 안에 있으면 폐업으로 인해 고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계속기업도 고용을 축소하고 있음을 뜻함.

- 창업으로 인한 고용 창출이 이후에도 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력별로 폐업에 의한 고용감소(고용소멸; 옅은 회색 면)를 상쇄하는 고용증가가 나타나야 하나 고용증가 규모는 미흡.
    - 계속기업의 고용증가 규모는 전 업력에 걸쳐 폐업기업의 고용소멸 규모에 미달.
  - 뿐만 아니라 계속기업의 고용감소(진한 회색 면) 규모는 계속기업의 고용증가 규모와 유사하거나 이를 능가.
    - 계속기업의 순고용증가(고용증감, 흰색 면과 짙은 회색 면의 차이)는 업력 1년에서 잠시 양(+)<sup>1)</sup>의 값을 보일 뿐, 이후 시기에서는 모두 거의 0(zero)에 가깝거나 음(-)<sup>2)</sup>의 값을 나타내어(점 그래프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음), 계속기업의 고용 기여는 미미.
- 계속기업의 고용 기여가 미미함에 따라 결국 창업에 따른 고용 창출은 이후 폐업에 따른 고용소멸에 의해 잠식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잠식 규모는 업력 1년 차가 가장 크며 업력이 경과할수록 조금씩 감소하다 업력 4년 차에 이르러 일정 수준을 유지.
- 창업에 따른 고용창출 규모가 비록 크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연도에 ‘반짝’ 효과로 작용할 뿐 지속적인 고용개선 효과는 미흡.
-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창업 못지 않게 창업 이후의 사업 유지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 ‘창업’에서 ‘성장’으로 정책적 관심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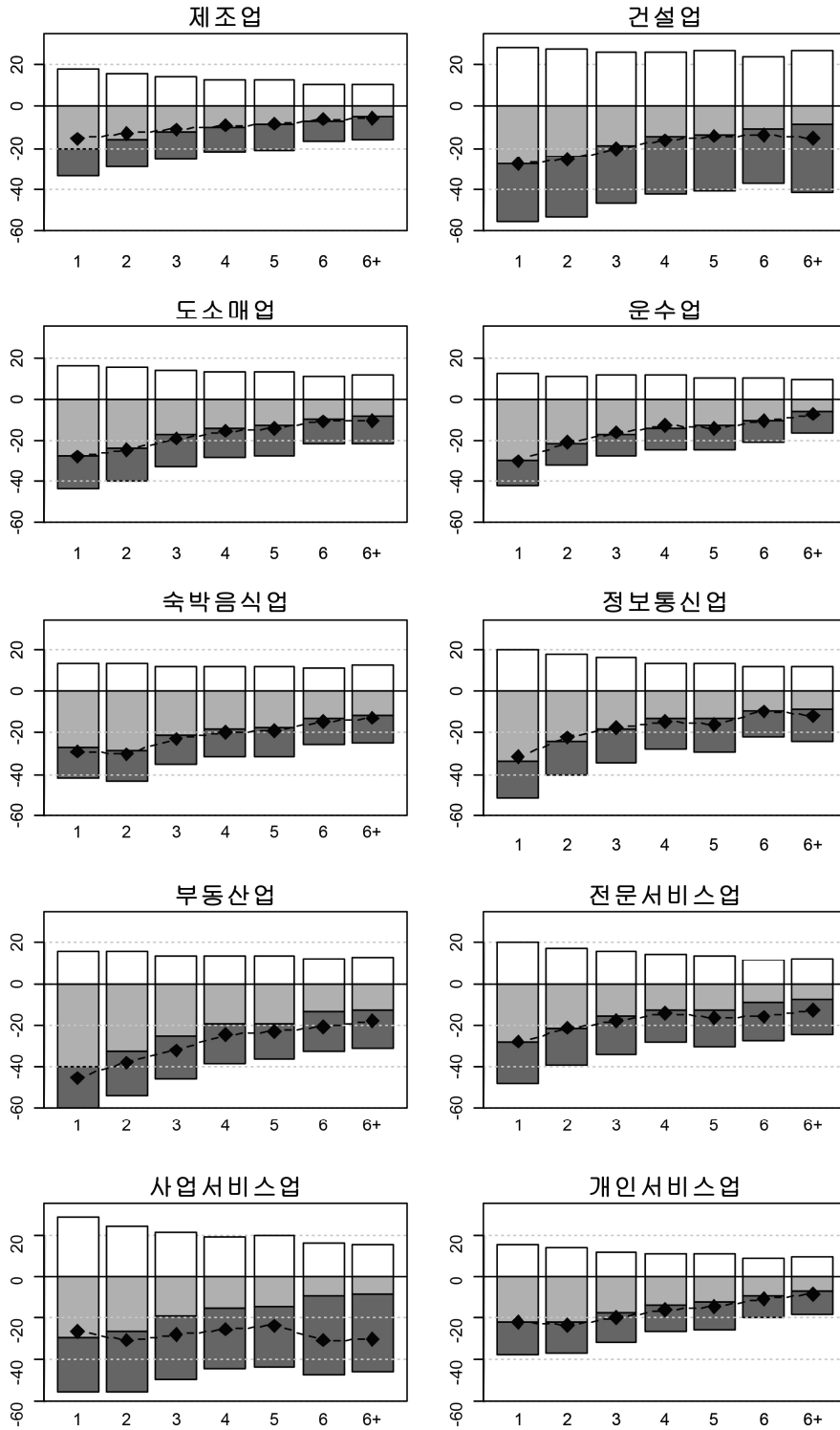
[그림 7] 업력별 고용 분해



\* 흰색은 창업 또는 계속기업의 고용증가를 나타내며, 옅은 회색은 폐업에 따른 고용감소, 즉 고용소멸을 표시, 짙은 회색은 계속기업의 고용감소, 점 그래프는 계속기업의 고용증감과 폐업기업의 고용소멸을 반영한 고용증가와 고용감소의 차이.

- (업종별 업력별 고용변동) 업력 1년 차 폐업에 의한 고용감소율은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이 높은 반면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업력 1년 차 폐업에 의한 고용감소율은 각각 39.7%, 33.7%, 30.0%, 27.7%, 27.4%, 제조업은 20.2%.
    - 제조업의 경우 타 업종 대비 1년 차 생존율이 높으며 업력이 길수록 사업체당 종사자 수 규모가 커, 창업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폐업이 이루어지기 때문.
  -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은 계속기업의 순고용 증가가 폐업에 따른 고용감소(고용소멸)를 보완.
    - 두 업종의 경우 업력이 길어질수록 고용규모가 큰 데 기인.
  - 사업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운수업, 건설업은 타 업종과 달리 업력 4년 차 이후 오히려 계속기업의 고용이 악화되는 모습.
    - 이들 업종에서는 상당 기간 업력이 경과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 안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
  - 부동산업은 폐업에 의한 고용감소율이 매우 높으며 전 업력에 걸쳐 계속기업의 고용 감소.
- 숙박음식업, 사업서비스업은 창업 2년 차에 순고용증가율(고용증가율-고용감소율) 수준을 나타내는 검은 색 점이 업력 1년 차보다도 더욱 짙은 회색 면으로 내려 와 있어, 계속기업의 고용 사정이 업력 1년 차보다 업력 2년 차에 더욱 악화되는 경향.
  - 업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 감퇴가 심화됨을 의미

[그림 8] 업종별 업력별 고용 분해



\* 흰색은 창업 또는 계속기업의 고용증가를 나타내며, 옅은 회색은 폐업에 따른 고용감소, 즉 고용소멸을 표시, 짙은 회색은 계속기업의 고용감소. 점 그래프는 계속기업의 고용증가와 폐업기업의 고용소멸을 반영한 고용증가와 고용감소의 차이.

- (계속기업의 고용) 계속기업(생존사업체)의 고용증가율은 정보통신업이 가장 높으며,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은 고용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
  - 창업 후 6년까지 정보통신업의 사업체당 고용은 8.2명에서 17.1명으로 109%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음.
    - 정보통신업의 경우 초기 생존율은 낮으나, 생존한 기업은 고용을 크게 늘리는 추세.
    - 정보통신업은 창업년도의 평균 고용 규모가 타 업종과 비교하여 크기 때문에, 생존 사업체의 고용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큼.
  - 이외에 창업 후 6년까지 사업체당 고용은 사업서비스업이 46%, 제조업이 42%, 건설업이 44%, 전문서비스업이 36% 증가하여 증가율이 높은 편.
    - 사업서비스업과 건설업은 정보통신업과 유사하게 초기 생존율은 낮으나 생존한 기업의 경우 고용을 크게 늘리고 있음.
    - 제조업은 생존율과 생존 사업체의 고용 증가율이 모두 높음.
  - 도소매업(18%), 운수업(27%), 숙박음식업(4%), 부동산업(-14%), 개인서비스업(-5%)은 생존 사업체의 고용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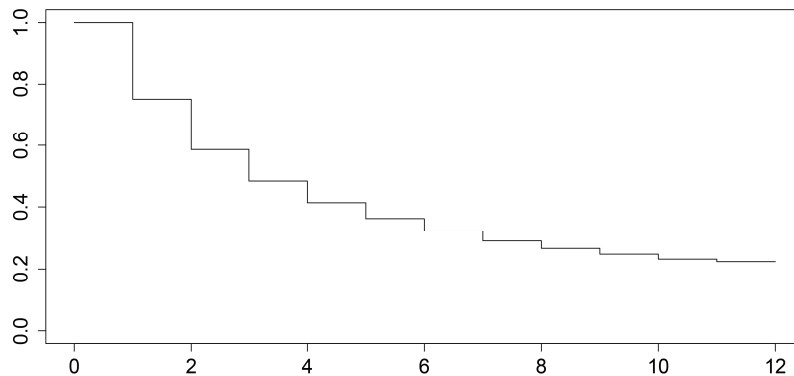




### 3. 창업기업의 생존율

- (생존율 추정 방식) 생존율 측정은 Kaplan-Meier (1958)의 비모수적 생존 함수 추정법에 따라 관측 기간에서 개체별 지속기간을 측정한 뒤 기간별 생존율을 구하고, 이들 생존율의 누적곱(cumulative product)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
  - 인구통계에서 작성하는 생명표(life table)의 생존율 분석 또는 기대여명 분석에서 활용되는 방식.
  - 통상 용이하게 활용되는 방식은 집계방식의 생존율로서, 이 방식은 연도별 생존사업체 수의 변동을 기초로 생존율을 추정한 뒤 연도별 생존율의 단순 평균값을 기간 생존율로 제시.
    - 집계 방식의 생존율을 산출할 경우 집계치의 평균값에 의존함으로써 특정년도의 집계치 변동이 과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체 창업 사업체 생존율) 창업 사업체의 약 4은 1년 내에 폐업하며, 4년 내 절반이 사라짐.
  - 전체 창업 사업체(기업) 생존율은 1년 차에 0.748이며, 2년 차 0.588, 3년 차 0.488, 5년 차 0.363에서 7년 차 0.290으로 감소.
  - 3년 내에 약 41%, 4년 내에 약 51%가 폐업하며, 6년이 경과하면 70% 이상이 사라짐.

[그림 10] Kaplan Meier 생존율 추정(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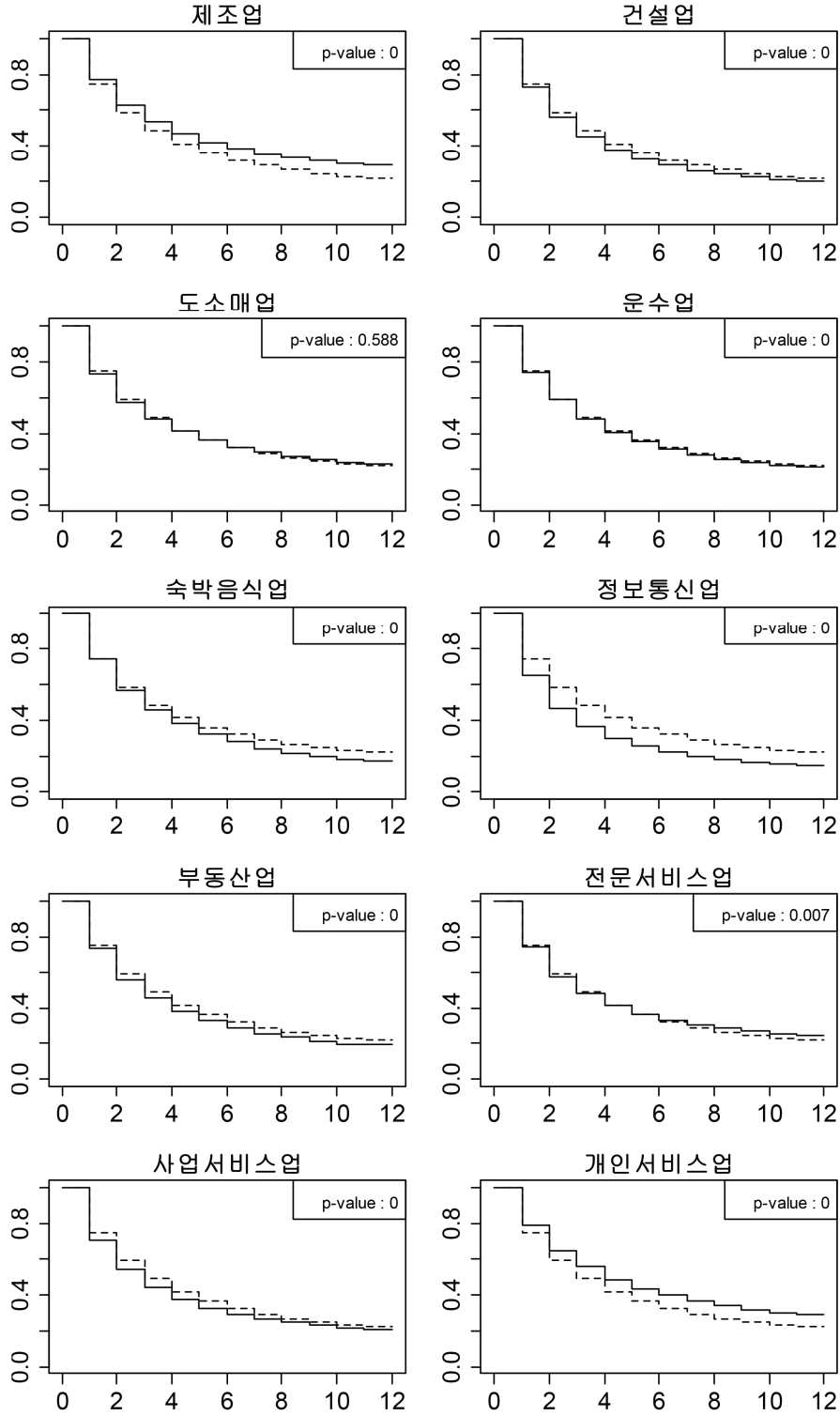


- (업종별 생존율) 제조업 및 개인서비스업의 생존율은 중소기업 전 업종 생존율과 비교하여 전 기간에 걸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과 정보통신업의 생존율은 전 업종 생존율 대비 낮은 편.
  -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의 5년 생존율은 각각 0.421, 0.435, 0.329, 0.256.
  - 건설업의 낮은 생존율은 '10년 이후 건설경기 불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큼.
  -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초기 생존율은 전 업종 생존율에 비해 낮으나 6년째 생존율은 이보다 높음.
  - 숙박음식업의 생존율은 기간이 길수록 전 업종 생존율 대비 격차가 더 큼.
    - 숙박음식업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여 업력이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

[표 1] 업종별 생존율

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전 업종	0.748	0.588	0.488	0.415	0.363	0.323	0.290	0.266	0.247	0.230	0.222
제조업	0.771	0.628	0.535	0.469	0.421	0.385	0.356	0.334	0.317	0.302	0.294
건설업	0.726	0.558	0.453	0.380	0.329	0.292	0.264	0.242	0.224	0.212	0.203
도소매업	0.733	0.576	0.480	0.412	0.362	0.326	0.296	0.273	0.254	0.239	0.231
운수업	0.738	0.588	0.482	0.410	0.353	0.310	0.279	0.257	0.240	0.224	0.216
숙박 음식업	0.744	0.569	0.462	0.382	0.325	0.283	0.246	0.219	0.199	0.180	0.172
정보 통신업	0.648	0.467	0.365	0.300	0.256	0.225	0.200	0.183	0.169	0.157	0.151
부동산업	0.729	0.558	0.455	0.380	0.328	0.289	0.256	0.233	0.215	0.199	0.191
전문 서비스업	0.736	0.575	0.478	0.411	0.363	0.330	0.303	0.283	0.267	0.253	0.246
사업 서비스업	0.710	0.539	0.441	0.371	0.327	0.294	0.266	0.248	0.231	0.218	0.210
개인 서비스업	0.794	0.649	0.557	0.487	0.435	0.396	0.363	0.338	0.318	0.301	0.292

[그림 11] 업종별 생존율



## 4. 정책적 시사점

- 창업 규모나 창업률의 측정은 통상 창업 당해 연도의 고용 효과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창업의 실질적 고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초기 창업의 규모만큼, 창업 이후 창업의 고용 효과 지속에 대한 분석 필요.
- 본 연구의 동태적 분석은 이 같은 관점에서 창업 기업의 창업 이후 고용 변동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경향을 발견.
  - 창업이 고용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 즉, 신기술 신사업 유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혁신성 감소를 시사.
  - 창업 사업체의 고용변동을 창업에 의한 고용증가와 폐업에 의한 고용감소, 계속기업의 순고용증가(고용증감)로 분해하면, 창업에 의한 고용증가는 대부분 폐업에 의한 고용감소로 상쇄되며 계속기업의 순고용은 감소.
    - 폐업에 의한 고용소멸이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잠식하는 규모는 업력 1년 차에서 가장 크며 업력 4년 차에 이르러 일정 수준을 유지. 계속기업의 고용 감소까지 감안하면 창업 이후 창업에 따른 순고용효과는 음(-)의 값.
    - 창업에 의한 고용창출은 고용 유지나 고용 확대의 형태로 지속되지 못하고 있으며, 창업 후 고용은 담보상태이거나 감소.
  - 정보통신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은 폐업에 의한 고용 감소율이 높고 생존 사업체의 고용 효과가 크며, 제조업은 동일하게 생존 사업체의 고용 효과가 크나 폐업에 의한 고용 감소율이 낮음.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운수업은 폐업에 의한 고용 감소율도 높고, 생존 사업체의 고용 효과도 작다.
    -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업력 1년 차 폐업에 의한 고용감소율은 각각 39.7%, 33.7%, 30.0%, 27.7%, 27.4%.
    - 창업 후 6년까지 정보통신업의 사업체당 고용은 8.2명에서 17.1명으로 109%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사업체당 고용 규모 증가는 각각 18%, 4%, -5%.

- 창업 기업의 초기 생존율은 창업 1년 차 0.748에서 창업 3년 차 0.488로 급락.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의 생존율은 중소기업 전 업종 생존율보다 높은 반면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업, 사업서비스업의 생존율은 이보다 낮음.
- 국내 창업 실패는 창업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생존기업의 고용 확대가 부진하며 생존율도 높지 않음.
  - 창업 이후 생존사업체의 고용증가보다는 폐업사업체의 고용소멸 및 생존사업체의 고용감소가 우세하여 창업의 고용기여 효과가 취약.
    -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업종을 중심으로 창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기술력이나 사업경쟁력 없이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 창업이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창업 이후 고용 유지 능력이 취약함을 의미.
- 창업의 고용 기여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과 같이 생존율이 낮은 업종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정보통신업과 같이 생존사업체의 고용확대 효과가 큰 업종의 생존율 제고 필요.
  -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을 지원해야 하고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생계형 창업의 지원도 불가피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당장 창업이 늘더라도 창업의 고용유지 효과가 미약하면 결과적으로 고용 기여는 미미.
  - 고용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창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생존 능력이 크고 생존 이후 고용 확대 역량이 큰 분야 육성 필요.
  - 정보통신업, 전문서비스업과 같이 기술력이나 성장잠재력의 발휘가 가능한 업종이나 제조업과 같이 폐업 영향이 작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 필요.
- 창업 못지않게 초기 창업 기업의 정착과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
- 창업 정책이 이제까지 양적 “창업”에 초점을 맞춘 창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면 향후에는 창업 기업의 질적 육성, 즉 창업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의미.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

발행인 : 김세종

편집인 : 김세종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 타워 (121-90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bi.re.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